

보도시점 2026.5.27.(수) 15:00 배포 2026.5.27.(수) 14:00

K-방산과 K-지능형교통체계(ITS)의 전략적 만남,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모델 발굴

- 수출 플러스 지원단, 「방산-지능형교통체계(ITS) 분야 수출·수주 협력 간담회」 개최,
지능형 이동체 연계, 안티드론 등 협력모델 발굴로 글로벌 수출 경쟁력 제고

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(단장: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, 이하 지원단)은 5월 27일 수출입은행에서 「방산-지능형교통체계(ITS) 분야 수출·수주 협력 간담회」를 개최했다. 이번 간담회는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접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무기체계 지능화와 유무인 복합화를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(ITS, Intelligent Transport System)의 첨단기술을 방산 분야와 연계함으로써, 양 산업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해외 진출 모델을 구상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지능형교통체계(ITS) 기술은 인공지능(AI) 기반의 객체 인식·통신(V2X), 통합 관제, 지능형 이동체와 디지털 트윈 등 민간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용 이동체 연계, 복합경계·통합지휘, 국방 자율주행, 안티드론 등 국방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. 지원단은 이러한 기술적 흐름에 맞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능형교통체계(ITS) 기술 강소기업과 방산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방산의 하드웨어와 지능형교통체계(ITS)의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모델 발굴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너지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.

이날 행사에는 지원단 부단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,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(ITS 협회), 국방기술진흥연구소(국기연), 한국방위산업

진흥회(방진회)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. 특히 K-지능형교통체계(ITS) 기업 6개사와 K-방산 기업 8개사가 참여하여 각 기업의 핵심기술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.

방산 분야 8개사 <small>주요협력분야</small>	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위치정보 기술, 기아차 자율주행, 한화시스템 드론 대응, 경계-지휘통제, (주)우리별 안티드론, 블루웨이브텔(주) 탐지/식별, (주)에이아이리더 경계 솔루션, 트래시스(주) 통합 관제, 포인드(주) AI 기반 탐지/식별
ITS 분야 6개사 <small>주요협력분야</small>	(주)딥엑스 온디바이스 무기체계, 뱀부스(주) 디지털 트윈, (주)에스오에스랩 자율주행 센서, (주)에티포스 무인차량 운용, (주)지슨 전장 지휘통제 보안, 쿠도커뮤니케이션(주) 복합경계 대응

기술 발표 후 이어진 토의 세션에서 참석 기업과 유관기관들은 방산과 지능형교통체계(ITS) 간의 실질적인 연계 협력 방안과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.

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“K-지능형교통체계(ITS)의 첨단 기술력과 K-방산의 신뢰성이 결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패키지 수출모델이 될 것”이라며 “두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파트너십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재정재정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 글로벌진출팀	책임자	팀 장 공경화 (02-6000-5784)
		담당자	사무관 김호열 (02-6000-5774) (devil77@korea.kr)